

광주 연립·다세대 4년만에 가격 두배

올 실거래 중간가격 1억3000만원...상승폭 17개 시·도 중 최고 전남 6300만원...2018년까지 4년간 22% 상승하다 올해 하락

광주지역 올해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중간 가격(중위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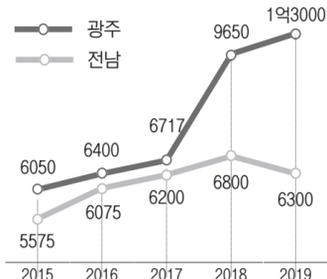
13일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시도별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중간 가격 추이(매년 5월 7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올해 실거래가 중간 가격은 각각 1억3000만원과 6300만원이었다.

광주 가격은 최근 5년 간 6050만원(2015년), 6400만원(2016년), 6717만원(2017년), 9650만원(2018년)으로 뛰었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3350만원 오른 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중간 가격이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대비 올해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광주가 꼽혔다. 광주 다음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울산(2780만원 ↑), 전북(1050만원 ↑)과도 차이가 컸고 나머지 8개 도시는 가격이 하락했다. 매매 가격이 2016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이어지는 하향 안정세와는 반대되는 결과다.

연도별 평균 중간 가격은 지난 2016년 1억6500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하락, 올해 1억4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광주 거

■ 광주·전남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중간가격 추이 <단위:만원>



래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평균 가격(1억5800만원) 보다는 낮지만 지역 평균(9800만원) 보다 월등히 높다.

지역별로 보면 실거래 매매 중간 가격은 서울이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2억1600만원), 경기(1억4000만원), 대구(1억3100만원), 광주(1억3000만원) 순이었다. 부산은 1억1500만원으로 광주의 뒤를 이었다. 광주 연립·다세대주택의 이례적인 시세 상승은 신축과 구축 주택의 가격 차가 확대된 것

? 연립·다세대 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빌라' 등으로 불린다. 연립 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다세대주택은 합계가 660㎡ 이하이다.

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전국적으로 50.0%였던 연립·다세대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는 지난해 55.6%, 올해 68.8%까지 벌어졌다.

직방 관계자는 "가격 변동에 있어 수도권은 구축 주택의 하락이 원인이 되고 있고, 지방은 신축 주택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차이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 매매 실거래가 중간 가격은 올해 6300만원이었다. 전남 가격은 지난 2015년 5575만원, 2016년 6075만원, 2017년 6200만원, 지난해 6800만원으로 4년 동안 22%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 가격은 오히려 500만원 떨어졌다.

중간 가격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를 지난 7일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 전용 면적 매매 실거래가 중간 가격은 36㎡ 1억원, 39㎡ 9600만원, 49㎡ 1억3000만원, 59㎡ 1억4500만원, 84㎡ 2억2100만원을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79.01 (-29.03) 금리(국고채 3년) 1.72 (0.00)
- ↓ 코스닥 708.80 (-13.82) ↑ 환율(USD) 1187.50 (+10.50)



빅딜 (Big Deal): 북한도미사일의 완전제로 제재 전면해제, 금증 착수, 북한 경제 타결 (all in one) 에

작은 딜 (Small Deal): 선 우라늄 농축 시, 사일 시험 및 생산 안보리 제재 결의인 여 개성공단과 금강선언 (Sigfried Hecl

광주은행,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초청 특강

한반도 정세 분석·전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3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문정인(사진)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 분석과 향후 전망'의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번 특별강연은 광주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전망에 대해 주요내용을 다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

조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제재 틀 안에서 남북협력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은행 이승구 안전관리실장은 "남북관계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분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변화와 향후전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6부터 2년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현재 GlobalAsia 편집인과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

광주·전남 서비스업 생산·소매판매 부진

통계청, 1분기 동향 조사

광주·전남지역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비교적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각각 105.5, 103.9(2015년 기준치 100)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2.0%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광주 생산지수는 지난해 4분기(2.2%) 보다 1.6%포인트 축소된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 증가세는 전년(2.9%)보다 0.9%포인트 줄어들었다.

광주 서비스업 중에는 보건·사회복지 부문이 8.1%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전문·과학·기술 부문은 가장 큰 폭(-7.5%)으로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부문이 11.2%로 크게 증가했고 도소매(-1.7%), 금융·보험(-0.6%)은 악화됐다.

소매판매 지수는 광주 98.8, 전남 98.7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4%, 0.6% 감소했다.

광주 소매판매 지수는 전분기 증가(1.3%)에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번에는 백화점(-2.4), 대형마트(-1.9), 승용차·연료소매점(-1.6%) 등 부문에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 소매판매도 전분기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고 전문소매점(-0.9%), 승용차·연료소매점(-0.8%) 등에서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서비스업 생산·소매판매액 지수는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자료를 표본틀로 각각 1만3680개, 3880개 표본을 추출해 도출해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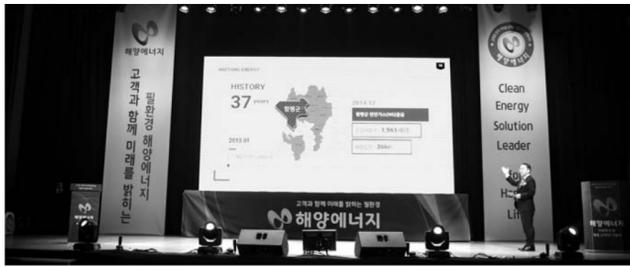
"종합에너지로 새롭게 도약" 해양에너지 CI 선포식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는 지난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창립37주년(창립일 5월 11일)을 맞아 해양도시가스의 새로운 사명인 '해양에너지'와 'CI',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해양에너지 CI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지자체, 국회의원, 재계, 언론 등 각계 대표와 회사 임직원 등 400여명이 해양에너지 CI 선포식에 함께 했다.

새로운 사명인 '해양에너지'는 광주, 전남 지역을 상징하는 '해양'이라는 역사적 지명과 종합에너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로 '에너지'를 결합했다.

또한, 사명은 '필환경시대의 청정에너지로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고 미래의 가치를 높여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 힘의 원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로운 CI는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해양에너지'의 슬로건 아래 무한한 가치 실현과 지속성장, 자연과 인류의 긴밀한 공존을 표현하고자 뽀미우스 퍼플 CI로 향상했다.

이날 김형순 대표이사는 해양에너지 CI 선포식에서 사명과 CI의 의미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직접 시행하며 해양에너지의 새출발을 선포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CI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양에너지는 지역사회와 회사, 구

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해양에너지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가스사업영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신규사업을 확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미래의 해양에너지가 나아가야 할 4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 기존 도시가스사업의 강화로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안전관리와 고객서비스 향상 ▲ 고객에게 맞는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 ▲ 수소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운영과 생산기지 구축, 4차산업 IoT 및 AI 기반을 활용한 선진화와 시장개척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기업 등이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1982년 5월 11일 설립 이후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 8개 시·군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